“시작된 변화…미래 100년 완성”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
기호 3번 진우 스님

“불교 호감 · 선명상 흐름 열매 맺어야”
완전복지 실현 위해 기본수행비 지급
지역사찰 활성화 · 교구중심 종단 운영
“추대부터 직선제까지 폭넓게 논의”
‘비공개 출마 선언’엔 “메시지 집중”

대담 · 정리=여수령 기자



진우 스님은… 백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8년 관응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98년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몽성선원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으며 담양 용흥사 주지,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또 조계종 호계원 재심호계위원, 총무원 총무부장과 기획실장, 제8대 교육원장 등을 역임했다. 사진=박지운 기자

진우 스님은 지난 4년간 제37대 총무원장으로 조계종을 이끌어 왔다. 재임 기간 선명상 보급과 불교박람회,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 등으로 이른바 ‘힙한 불교’ 흐름을 주도했다. 크고 작은 악재 속에서도 종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평가를 받으며 연임 도전은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진우 스님은 연임 출마를 결정하기까지 깊은 고민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긴 고민을 마치게 한 것은 원로 스님들의 말씀이었다. “한국불교가 지금 꽃을 피우기 시작했으니, 그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원력을 내야 한다”는 당부였다. 사부대중이 함께 힘들게 이뤄낸 종단의 안정과 변화를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선거 과정에서 불거지는 갈등에 대해선 승가의 전통적 합의 방식인 ‘갈마’를 강조했다. 8월 11일 이뤄진 출마 선언에 대해선 종단 질서와 위상을 무너뜨리는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진우 스님과의 인터뷰는 8월 11일 서울 봉은사 구생원에서 진행됐다.

Q 연임 도전을 결심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개인적으로는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선 것은 종도들의 열망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 대한 국민의 호감이 높아지고 선명상 보급 등을 통해 국민들이 불교를 제대로 접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 변화로 이러한 성과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종단 안정이라는 굳건한 토대 위에서 한국불교가 더 큰 도약을 위해 진일보해야 할 때입니다.

원로 스님들께서도 “지금 한국불교는 열매를 맺기 전 꽃이 피는 단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가 충실히 맺도록 제 역할을 하겠다는 원력을 세웠습니다.

Q 37대 집행부를 평가한다면.

종단 외적으로는 불교에 대한 국민의 호감이 높아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불자가 될 수 있는 씨앗을 심었다는 점에서 소중한 성과라 자부합니다.

종단 내부적으로는 오랜 숙제였던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정부와의 치열한 협상 끝에 해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입니다.

임기 중 경북 산불과 청사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일을 겪었고, 자승 스님과 만당 스님의 입적이라는 큰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단 안팎으로 뜻깊은 성과를 거둔 의미 있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승가복지입니다. 출가에서 열반까지 완전복지를 이루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가는 과정이고, 이를 위해 ‘기본수행비 지급’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한편 다양한 문화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재원으로 기본수행비를 지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Q 38대 집행부의 중점 과제는?

지역사찰 활성화입니다. 지역사찰 중심 제도는 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전통입니다. 현재 교구본사는 지역별 당해 관내 종무를 통리하는 별도의 종무기관입니다.

총무원이 교구 본·말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불사·수행·포교 등에 필요한 제도를 제정하고 개선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본·말사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38대 집행부에서는 각종 국가 제도를 정비하고 본·말사가 지역사회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Q 교구자치와 참종권 확대 방안.

중앙의 권한을 교구에 과감히 이양해 본사가 지역사회의 명실상부한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앙이 앞서고 교구가 따르는 종단이 아니라 교구와 함께 생각하고, 결정하며, 실천하는 종단으로 바꿔야 합니다.

또 승가의 선거가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추대제부터 직선제까지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사부대중의 중의를 모아 승가의 위의에 맞는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Q 선명상 대중화의 성과와 계승 방안은?

선명상 종책의 핵심은 ‘간화선 참선 수행의 대중화’입니다. ‘선명상’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대중이 조금이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로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명상이라는 단어에 집착해 종지와 종풍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 끝만 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종단은 다양한 포교 방법을 시도해 봤지만 그럼에도 불자는 줄어들었습니다. 선명상은 획기적으로 새로운 불교를 보여줘야 한다는 위기감과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결과 선명상은 불자는 물론이고 국민에게 호응을 얻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38대 총무원장이 된다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명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마음운동’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간화선 참선 수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지도 법사를 양성해 더 많은 국민이 한국불교의 진면목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불교문화를 세계화해 인류 정신문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 AI시대 한국불교의 역할은?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인간성 상실과 양극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AI가 아무리 편리한 문명이라 해도 불제자들이 몸소 체득한 수행의 지혜와 자비를 지닐 수는 없습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 종단이 ‘로봇 스님’ 수계식을 봉행한 것은 AI가 인류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닌 도반일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술은 인간 존중이라는 가치에 따라 활용돼야 하고, 기술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 역시 지혜와 자비라는 불교적 가르침에 기반해야 합니다.

앞으로 간단한 교리 분석과 번역, 행정 보조 같은 형식적 기능에는 AI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불교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불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현상에 끄달려 시시비비하기보다 AI 역시 지나가는 과정일 뿐임을 여실히 알아야 합니다.

Q 비공개 출마 선언의 의미는.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을 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주변의 걱정과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와 어떤 종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Q 선거로 인한 갈등에 우려도 큰데.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근거 없는 비판은 수행공동체인 승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종단 내 종법과 절차가 있음에도 네거티브를 일삼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이며 종단의 위계와 위상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사회법에 의지하는 것도 또 다른 종교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승가에는 오랜 갈마의 전통이 있습니다. 갈마 전통에 따라 수행자답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Q 앞으로 4년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동안 여러 종단 소임을 맡아오면서 제가 드러나거나 부각되기를 원한 적은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총무원장 재임하는 동안 조계종이 한국불교의 새로운 길을 열고 선도할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Q 종도와 불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승가는 더욱 당당하게, 종단은 더욱 안정되게, 불교는 더욱 젊고 역동적으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6 승려연수교육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포교
- 대승기신론의 시각으로 본 일심
- 변화하는 시대의 소통방안
- 생활속의 마음 공부 : 치유와 성장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 연수 개요

- 주 제 :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일 정 : 2026년 9월 7일(월) ~ 9일(수) [2박 3일]
-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 인 증 : 조계종 교육원 인증 연수 (30점)
-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
- 교 육 비 : 20만원
- 입 금 :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과학원
- 웹사이트 : http://www.hansi.org
- 문 의 : 한마음과학원 사무국 031-470-3200/3201 (일,월요일 휴무)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